

◎ 중앙지·지방지 주요기사 내용

전민일보

2021년 06월 17일 목요일 016면 기획

군산 특산물 이용 '군산짬뽕라면' ... 관광상품 '불티'

군산원협-군산대-군산시 함께 일군 결실

군산원에농협과 군산대학교, 군산시가 개발한 군산짬뽕라면은 군산흰찰쌀보리와 감자를 이용해 면을 제작하고 건더기 등 모두 국내산 원재료를 이용해 만든 라면이다. 군산짬뽕라면은 전북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라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발 동기와 과정을 알고 맛을 보게 된다면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참신하고 매력적인 상품이다.



▲군산짬뽕라면이 지난 10월 롯데백화점에 입점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고계곤 군산원협 조합장과 직원들

▲군산짬뽕라면 이마트 입점 모습.

군산흰찰쌀보리로 만든 라면

예부터 군산은 보리가 유명했다. 조선시대 행정사례집인 '읍서'를 보면 전라도 옥구현(현 군산시)의 진상품으로 보리가 소개됐으며, 1908년 간행한 한국수산지도에 옥구부의 주요농산물로 보리가 소개되고 있다. 군산에서 재배되는 보리는 타 지역 보리에 비해 찰성이 강하고 불리지 않고 쌀과 함께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으며 식감 또한 우수하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품질에도 보리가 격은 계속해서 수요가 떨어져 하락하고 있다. 이 같은 보리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생하게 된 것이 군산짬뽕라면이다. 흰찰쌀보리로 면을 제작해 가격경쟁력 강화와 보리 소비처 확대 및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명칭이 군산짬뽕라면인 이유

군산은 일제강점기때 쌀을 수탈하기 위해 군산항을 개항했다. 이때 일본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됐다. 현재에도 군산에 화교들이 다니는 소화교가 있을 정도로 화교 또한 많이 들어왔다. 짬뽕의 유래는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화교들은 자기들이 먹는 방식으로 해산물과 채소를 볶아 육수로 끓여낸 국물에 국수를 넣어 먹던 '조미면'이 변형돼 짬뽕이 됐다는 설이 있다.

군산은 많은 화교들로 인해 곳곳에 청요리집이 생겨났고 자연스럽게 중국집이 유명하게 알려졌다. 현재에도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먹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짬뽕집이 전풍을 이어오고 있다. 군산짬뽕라면은 이러한 유명한 군산짬뽕을 모티브 삼아 제작했다.

산·학·관이 함께 만든 라면

군산짬뽕라면은 전국 최초로 산·학·관이 함께 만든 라면이다. 포장재를 보면 군산원에농협, 군산대학교, 군산시의 상징물이 모두 적혀져 있다. 군산원협은 라면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수급과 마케팅을, 군산대는 라면 제작 방법을, 군산시에서는 라면 포장재와 각종 사업비 지원을 맡고 있다.

군산흰찰쌀보리·감자 이용 면 개발 건더기 등 모두 국내산 재료로 맛내 저염·저칼로리 영양간식 입소문 시판초기부터 대박행진...해외 수출 하나로마트·로컬푸드·대형마트입점 뉴군산짬뽕·뉴군산불짬뽕컵면 출시

이윤추구와는 달리 군산지역 농수산물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로 인해 면은 군산흰찰쌀보리와 감자로 만들었으며 대파, 당근, 오징어, 미역 등의 건더기 모두가 국내산을 이용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보리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기존 라면에 비해 30%가 낮으며 칼로리 또한 낮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 또한 새우, 미역, 오징어, 홍합 등을 스프라하여 짬뽕맛 소스로 은은한 불향을 느껴 실제 중화요리집에서 먹는 짬뽕맛을 느껴볼 수 있다.

군산짬뽕라면 지난 한해 120만개 판매

군산짬뽕라면은 첫 출시때 약 13만개 가량 생산돼 1주일만에 판매됐다. 군산원협은 유통망을 이용해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군산 중소형마트 등에 마케팅을 펼쳤다.

또한 제작 취지와 공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문과 TV, 라디오에서 많은 방영이 이뤄졌다. 특히, SBS에능 프로그램인 백종원의 '맛남의 광장-군산편'에서 김희철이 직접 끓여 취식하는 장면이 방영돼 많은 홍보가 이뤄졌다.

기존 라면보다 장점이 확실해 현재 하나로마트 양재점, 창동점 등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팔리고 있으며, 롯데백화점 잠실점, 이마트 군산점, 롯데마트 군산점, 코레일 유통 등 판매처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1월 출시한 짬뽕라면은 미국과 뉴질랜드에도 수출해 한해 동안 120만개 가량 판매됐다.

뉴군산짬뽕, 뉴군산불짬뽕컵면 출시

군산짬뽕라면은 울들어 미국, 뉴질랜드, 호주, 홍콩 등 NH무역을 비롯해 많은 수출업체에서 해외 판매를 요청해 왔다. 기존 군산짬뽕라면은 국내산 육류가 액상스프에 함량돼 있어 수출하는데 제한적인 수출만을 진행해왔다.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고자 군산원협은 전북도 일부 농협과 가공식품 농업회사법인 (주)라이프드림을 받기 하고 올해 1월 뉴군산짬뽕, 뉴군산불짬뽕 컵면을 출시했다.

올해 출시된 두 가지 제품은 육류 사용을 배제하고 액상스프에 함량하는 원재료를 해산물로 제작해 수출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깊은 해물짬뽕을 느낄 수 있게 제작했다. 현재 호주 오픈숍에 입점돼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 내 몇몇의 마트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군산시민 릴레이 챌린지 진행

현재 군산에서는 '군산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 범시민 릴레이 챌린지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챌린지는 '불굴의 정신, 포기 모르는 끈질긴 정신 역전의 명수 군산! 따뜻한 나눔의 시작, 같이 삼시다! 우리의 현명한 구매가 군산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를 표어로 지난 5월부터 군산원에농협(조합장 고계곤)에서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 뉴군산짬뽕, 뉴군산불짬뽕컵면을 출시했다.